

배포일시	2020. 8. 2.(일) 16: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박종찬 사무관 최찬운	전화번호	031-8025-5011

수도권 집중호우 지속, 재난대비 철저

- 서울·인천·경기도 강수 집중,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
 - 5일까지 100~300mm, 서울·인천·경기도 최대 500mm 이상
 - 시간당 50~100mm 반복, 2일 밤~3일 오전 시간당 100mm 이상
 -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서울·인천·경기도에 다시 강한 호우로 인한 피해 대비
- 태풍 '하구핏(HAGUPIT)'에 의해 더 많은 열과 수증기 유입
 - 서울·인천·경기도 집중호우 철저대비! 위험지역 사전 대피 필요!



[8월 3일(월) 아침 기압계 모식도]

[강수 전망]

- (강수 현황) 현재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한 가운데 남쪽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 (강수 전망) 5일(수)까지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과 북한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남동해안(상해 남쪽)을 향해 이동 중인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에 동반된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되면서 앞으로 내리는 비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수량) 2일(일)~3일(월)에 서울·인천·경기도에는 100~200mm,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강한 비가 이어지며 2~5일까지의 총 누적강수량은 100~300mm, 최대 500mm가 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도권은 최근 일주일(7월 29일(수)부터 8월 2일(일) 현재까지) 동안 100~5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과 계곡의 물이 많이 불어나 있고, 지반도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축대붕괴, 농경지·지하차도·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위험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 **북한(황해도)지역**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겠으니, **상습침수 지역의 거주민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예상강수량(2~3일)**

- 서울.인천.경기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 **(강수강도)** 이 기간 동안(2~5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고, 재해 취약시간대인 밤부터 오전 사이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특히, **2일 밤~3일 오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또한, 강수집중구역이 **남북 50km 이내로 매우 좁아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고**, 한 곳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소강상태를 잠시 보이는 수도권에서도 위험기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하기 바랍니다.
- **(변동성)** 태풍 ‘하구핏’이 중국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는 시기에 방출되는 수증기의 양이 더욱 많을 경우 5일 이후에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태풍 현황과 전망]

- (현황)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은 1일(토) 21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2일 15시 현재 최대풍속 19m/s(68km/h), 중심기압 998hPa, 강풍반경 240km의 세력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380km 해상에서 시속 17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 (전망) 앞으로 태풍은 중국 상해부근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4일(화) 새벽에 중국 남동해안에 상륙하겠으며, 상륙 직후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